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5/8/2022

22-20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부활 제4주일  
(Wh) 4th Sunday of Easter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요한 10,28/ Jn 10:28



###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 미사시간 Mass Schedule

####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Until 11/30 Temporary Schedule)

###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5월 / May

####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 For faith-filled young people

We pray for all young people, called to live life to the fullest; may they see in Mary's life the way to listen, the depth of discernment, the courage that faith generates, and the dedication to service.



**부활 제4주일 (다해)**

**4th Sunday of Easter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 시편 33(32),5-6 참조 /Ps 33(32):5-6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The merciful love of the Lord fills the earth; by the word of the Lord the heavens were made, alleluia.

**【제1독서/First Reading】**..... 사도 13,14.43-52 / Acts 13:14.43-52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flock.

**【제2독서 / Second Reading】**..... 묵시 7,9.14L-17 / Rev 7:9.14L-17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I am the good shepherd, says the Lord; I know my sheep, and mine know me. ◎

**【복음 / Gospel】**+ ..... 요한 10,27-30 / Jn 10:27-30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The Good Shepherd has risen, who laid down his life for his sheep and willingly died for his flock, alleluia.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5/8 10am	5/8 3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울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신바오로, 김아네스, 안강희 요안나, 홍마리아고레띠, 주윤철 미카엘, 이정숙	Charles Angel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박우슬라 가정, 강프란치스코&마리아, 박안셀모, 정윤정, 이니콜라스&테레사, 염요셉& 카타리나, 박마리아, 고요셉, 고에우제니아, 고발레티나, 고마틸다, 이소피아, 김연정크레센시아,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 양의 특성

성서를 살펴보면 특히, 신약성서를 읽다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통 '눈이 나쁘다', '잘 속는다', '잘 넘어진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이기적이고 멋대로 이다', '방향 감각이 없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많이 모자라는 동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게도 중동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는 놈, 고집이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의 가장 심한 욕을 '양 같은 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잘 발달된 것이 있다면 '귀'뿐입니다. 거기에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수 없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 A Blessing in Disguise)이랄까 양이 듣기를 잘하기에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다"라는 우리의 격언(a proverb)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인간사(人間事 Human affairs)에서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라틴어 시간이었는데 교수 신부님께서 한 단락(paragraph)을 꼭 집어 말씀하시며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 하셨습니다. 저는 때마침 책에다 그 단락에 중요표시를 크게 해놓았습니다. 중간고사 시간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단락만 공부하고 갔는데 그 단락 전체가 시험문제가 나와서 만점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어린 신학생은 말도 안된다며 투덜댄 것이 생각납니다. 또 수도회 신부들과 대화중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오해를 하거나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사가는 양(요한:10,27-30)을 등장 시켜 그 특성인 잘 듣는 것으로 부터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하느님은 하나라는 복음(케리그마 Kerygma)을 선포합니다. 늘 사랑과 존경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죄를 만들고 추문(醜聞 scandal)이 되게 했던 나와, 자신에게 악이 들오도록 놓아 둔 것도 죄인 것을 모르는 우리를 감싸 앉으시는 예수님과 본성이 같으신 하느님을 만나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양의 특성을 가진 나약한 우리는 들음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김대선 신부

## 성인 말씀

진실되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특별해져야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끈기있게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 성녀 마더데레사 -



## Traits of a Lamb

When we read the Bible, especially the New Testaments, we often encounter the metaphor of lamb and shepherd. Traits of lamb include 'poor eyesight,' 'easy to be tricked,' 'stumbles easily,' 'cannot get up easily,' 'hard to keep balanced,' 'selfish and impulsive,' 'poor at finding directions,' etc. In sum, it is not an intelligent animal. Interestingly, people call those foolish and not listening 'a lamb' in the Middle East area.

However, a lamb has one well-developed organ, which is its ears. A lamb recognizes the owner's voice well. Since they are weak to survive by themselves, lambs have an instinct to listen to their guardian's words. It is a blessing in disguise that we may apply it to our lives. Recall a proverb, "A wise listens well."

There was a time when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listening in human affairs. When I was a first-grader in a seminary, my Latin instructing priest emphasized one paragraph repeatedly. I marked the part, and I only studied that part because I did not have time to prepare. That was the only part of the exam, and I achieved a perfect score. I remember my younger colleague complaining about it as ridiculous, though. Also, I recall times when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s occurred in my monastery. Those began from not listening to others' words carefully enough. So it is indeed essential to listen well.

In today's gospel, John the evangelist declares God's word (Kerygma) on eternal life and the identity of Jesus and God through a lamb's listening trait (John 10: 27-30). We commit sins and make scandals due to a lack of love and respect. Jesus, who is God himself, embraces us who do not recognize our sins of letting evil creep into us. Although we are like lambs with all the bad traits, we can get the protection of God the eternal life by focusing on one good trait – listening.

Father Kim

## Saint

### Quotes

Let us always meet each other with smile,  
for the smile is the beginning of love.

- Mother Teresa -



##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5/8 Sun 10am			김마지아, 최클라라	강실비아	
3pm		Cecilia Park Ester Le Blanc	Clara Choi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5/9 Mon	No Mass				
5/10 Tue	No Mass				
5/11 Wed	No Mass				
5/12 Thurs	No Mass				
5/13 Fri	No Mass				
5/14 Sat	No Mass				
5/15 Sun 10am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3pm		Ester Le Blanc Grace Quiambao	Cecilia Ahn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 성모 성월 기도

### 마리아의 노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br/>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li> <li>●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br/>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li> <li>○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br/>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li> <li>●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br/>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li> <li>○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br/>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li> <li>●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br/>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br/>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li> <li>○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br/>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li> <li>○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br/>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li> <li>●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li> <li>○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br/>아멘.</li> </ul> <p style="margin-top: 10px;">+ 기도합시다.</p> <p style="margin-left: 20px;">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br/>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br/>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br/>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br/>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br/>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br/>받아 누리게 하소서.</p> <p style="margin-top: 10px;">◎ 아멘.</p> |
|--|---|



## 본당소식 / Parish News

### ◆ 평일미사(Weekday Mass)

남가주 사제 피정 관계로 5/10(화)~5/13(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Due to Priest Retreat there will be no weekday mass from 5/10(Tu) ~5/13(Fri).

### ◆ Bishop's Dinner (주교님의 만찬)

일시(Date/Time): 5/14(토/Sat) 5pm

장소(Place): JW Marriott 74-855 Country Dr. Palm Desert

### ◆ 사목협의회 (Pastoral Council Meeting)

일시(Date/Time): 5/22(일/Sun) 11am

### ◆ Asian Pacific Day 미사

일시(Date/Time): 5/21(토) 10:30am

장소(Place): St. Elizabeth Ann Seton

2713 S. Grove Ave., Ontario, CA 91761

### ◆ 성령강림 대축일 준비 9일기도

강의: 5/25, 5/26 오후 7시

9일기도: 5/27 ~ 6/4

### ◆ 구역 모임

경의: 5/8(일) 10시미사 후 장소: OK 순두부

균샘: 5/15(일) 10시미사 후 장소: 북경

효경: 5/15(일) 오후 12시 장소: 하상홀

의견: 5/21(토) 오전 10시 장소: Descanso Gardens

통달: 5/21(토) 오후 5시 장소: 신모니카 자매님 댁

지식: 5/22(일) 오후 12시 장소: 진한

지혜: 5/22(일) 오후 12시 장소: 북경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 27



My sheep hear my voice. Jn 10, 27

### Mary's Mercy 사순희생예물 전달



**SUNDAY  
SCHOOL**

▪ 주일학교 커피와 레모네이드 판매: \$495

### 주일학교 여름 캠프

7월 8일(금) - 7월 10일 (일)

참가비 \$150/person

장소 : 48480 foolish pleasure rd. Aguanga , CA92536

대상: 1학년~9학년 (3학년 이하 부모참가 필수)

Building bridges : Renewing the sense of the community in the new heaven and earth.

새 하늘 새땅에서 공동체로 거듭남에 있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신앙의 연결 고리를 만들수 있는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부모님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캠프 비용 모금을 위해 매주 주일학교에서 커피와 레모네이드를 판매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5/1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5/1 10am: \$1,005 (109명) 3pm: \$290 (50명)
교무금 Envelope	\$2,670 박성희, 고명화, 신모니카, 박용옥, 박종익, 이마태오, 현애리, 공문헌, 최클라라, 안요한 정주희
교구발전기금 DDF	\$500 박성희, 신모니카, 공문헌
합계 Total	\$4,465



# 주보광고 / Bulletin Ad

##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 Taiyos Sushi&Poki

951-343-1112  
11120 Magnolia Ave., Riverside  
(Westgate Plaza)  
<http://taiyosushi.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 교리상식 101

### 15. 성체성사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루카 22,19-20).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예식은 오늘도 우리가 미사를 거행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기에 여러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이기 때문에 성찬례(감사제)라고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이므로 주님의 만찬, 빵의 나눔, 성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를 재현하고 교회의 봉헌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희생 제사,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라고도 부르며,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신자들 파견(missio)한다는 뜻을 지녔기 때문에 미사라고도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8-1332항 참조).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